

## 113.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고마워. 친척 및 친구와의 너희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힌트.

2015.08.20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클레어를 잘라내지 않은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인내심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나의 신부들이 된 것에 칭찬해. 며칠이 지나면 내가 왜 너희들을 집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나는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 각각 모두를 커버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아, 밭에서 나와 협력하여 수고해라.

너희들의 일이 기도이든 나를 위한 수고이든 이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어떠한 것도 간과하지 않아. 나에게 바친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려도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여. 내가 너희들이 나를 지원하려는 태도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임재로 보상할 것이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수도 없는 열매로 보상할 거야.

세상의 대부분은 수세기동안 그래왔듯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아버지의 진노를 막고 환난의 시작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희들은 니스웨에서처럼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을 상상하기만 하면되. 그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아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제 3세계의 무고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나와 매우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단순한 사람들이야.

그래, 나의 일꾼들이 밭과 포도원으로 보내어졌고, 그들이 떼를 지어 내게 오고 있어.. 배고프고, 아프고, 길을 잃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삶의 진리를 갈망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고 무고하며 나는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기회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을 혐오해. 이것이 내가 말하는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야.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올 거야. 그 순간에 나의 천사들이 내려가서 포로들을 데리고 갈 거야. 나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자신이 그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 때는 오고 있어. 내가 반드시 나서야 할때가. 하지만 그때까지 세계 정부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할 수 없어. 그들은 제지되고 좌절되어지고 있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움직여.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굽적이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어.

오, 나의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올 때까지 홍수를 막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 나는 나라들을 움직일 것이며, 나를 막으려는 적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들은 무너지고 나에게 주어질 거야.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원이야. 그래, 너희들의 지원, 너희들의 기도, 해외 사역에 대한 헌금, 가능한한 모든 방법으로 해당 국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를 위해 계속해서 어리석어지기를 요청해.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그들의 길을 고려할 시간이 있는 동안 계속 경고해라. 그들의 세상적인 마음에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보여주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진정으로 알지 못해. 그들은 오락으로 약을 투여하지만 고요한 순간에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들을 괴롭혀. 나의 영은 내면의 그 공허함을 만지고 심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클레어) 주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것’ 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짓밟히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끔찍해요! 정말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신부들아, 가르칠 수 있을 때를 기다려라.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병이 생겼을 때, 재정적 손실이 생겼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격려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삶은 짧고 하루가 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어라. 그들이 경멸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휘저을 거야.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달라. 그들은 자신의 감정, 두려움 및 불안을 가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지를 보면 궁금해 할 거야..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진짜일까? 어쩌면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 이것이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너희들의 최선의 희망이야.

그들을 도발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라. 그들을 위로해주고 자비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식으로 그들은 너희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도와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들은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해준 그 누군가를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죄의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 그들은 아무 이유없이 나를 ‘천국의 사냥개’라고 부르지 않아!

나는 너희들 중 대부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너희들이 지켜보고 기다리다 지쳤다는 것을 알아. 나는 그 때에 너희들과 함께 했어. 나는 너희들과 그 때를 함께 겪었고 너희들에게 힘과 희망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

내 사역의 짧은 3년 동안 무관심 받고, 은혜를 모르고, 배신당하고, 나의 처형으로 절정에 달했던 삶을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어. 그 반대에 대한 강도는 너희들이 절대로 직면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자신의 십자가들이 있고 나는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좌절을 알고, 너희들의 슬픔을 알고, 너희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숨겨진 것들을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과거에 실수들에 대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알아. 나는 밤낮으로 너희들의 생각에서, 너희들의 꿈에서, 너희들의 눈물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해. 나는 위로와 함께 너희들을 찾아가. 나는 너희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너희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쉬게해. 나의 마음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항상 다가와라. 그곳에 너희들의 머리를 기대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치유를 받고, 그곳에 짐들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의 무한한 자비의 신성한 치유의 물을 가져가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무한정해.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해. 너희들이 기다리는 동안 너희들의 길을 나서고, 너희들의 혀를 붙잡고, 너희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줘. 오 그래,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어떻게 너희들의 육체를 죽이고 너희들의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매일 봐. 이것은 나를 매우 기쁘게 하고, 언젠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찾으며 이렇게 말할 거야. “감사해요.”

“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잔인하였을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너희들은 천국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더이상 싸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지쳐버린 순간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는 그들의 머리에 산더미와 같은 죄의식을 가져오고 동시에 산더미와 같은 사랑을 가져와서 그들은 마침내 회개해.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그들에게 죄의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나는 그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 내가 그곳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보여줘. 이제 보여? 너희들이 아주 적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많은 것을 하였어. 너희들은 친절, 관용, 자비의 씨앗을 뿌렸어. 그리고 나는 수확할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물을 줄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고로 천국에서 너희들을 기다리는 열매를 전혀 알지 못해.

클레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

(클레어)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그래, 나는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있어서 기뻐. 그들의 작은 노력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수확이 얼마나 클지. 그래, 나는 인내하는 신부들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있어! 나의 지연에 대해 적대감과 비굴함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들을 용서해.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을 모를 뿐이야.

(클레어) 저도 그래요 주님.

(예수님) 너의 마음이 여전히 슬프고 아프다는 것을 알아. 너는 나에게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안을 수 있게 해줘라. 이리 오거라.